

D-11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최고 '인권친화' 대회로...



市·인권영향평가단 현장점검 실시
응급의료 통역·이슬람기도실 제안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시정조치
대회 기간중에도 모니터링단 운영
'차별 없는 대회' 환경 조성 총력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시가 '2025 현대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의 인권 친화 대회로 치르기 위해 차별 없는 대회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인권친화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인권영향평가단과 대회가 펼쳐지는 광주국제양궁장,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경기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단이 제시한 개선 사항들을 대회조직위원회에 전달해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광주시 인권평화과, 상임읍브즈맨을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



국제양궁장 주변 도로 정비 완료 광주국제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12일 앞둔 24일 예선전이 펼쳐질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인권친화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애리 기자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한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살려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이 차별 없이 대회를 즐

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점검에는 인권영향평가단과 함께 광주장애인 양궁협회 소속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차별 금지, 장애인 접근성, 긴급 대응 체계, 환경 안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출입로, 주차장, 화장실, 도핑실 등 기존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 결과, 평가단은 중증장애인 선수 식음료 보조도구 제공, 모두의 화장실, 이슬람권 선수 기도실, 응급의료 통역서비스 마련 등 장애인 선

수들의 경기 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과 비상벨 설치, 주차장 표식의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적합성 확인 등 세부적인 개선 필요 사항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평가단의 의견을 즉시 반영해 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회지원단에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대회 전까지 모든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광주시는 대회 현장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단과 재점검을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인권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해 인권차별 요소를 실시간 점검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에 맞춰 광주에서 평화의 메아리가 전 세계로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함께 열려 진정한 사회 통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는 5·18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권도시로서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이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인권친화적 국제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9월5-12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9월22-28일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변은진 기자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李대통령, 日 거쳐 트럼프와 회담 위해 미국행

이시바 총리와 회담 '미래 협력' 강조
내일 취임후 첫 한미회담...준비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미국으로 이동,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한국시간 26일 새벽)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비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급박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도쿄에서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양국이 협력을 늘려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을 "최적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이시바 총리를 향해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언급하는 등 한일관계 발전의지를 집중 부각했다.

이날 오후 4시50분 시작된 회담은 소인수회담(02분)과 확대회담(51분) 순서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113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

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광주 자치구 성과평가 공개 '격각' 빈축 6면
코로나 이후 광주·전남 은행점포 40곳 ↓ 12면
최근 5경기 46실점...분노한 KIA 팬들 16면

2025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5. 8. 1. ~ 8. 31.

전라남도

지원대상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19세~28세)

① 신청개시일 기준 2년 이상 거주(2023.8.1.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② 19세 이상~28세 이하인 청년(1997년~2006년도 출생자)

*제외대상: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원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등
*일부지급: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차액 11만원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연 25만원 지원(체크카드 지급)
* 대상 청년은 매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시 거주자는 광주은행 누리집, 군 거주자는 농협카드 누리집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